

여자배구 막판 3경기 MVP 운명 갈린다

프로배구 V-리그 여자부가 막바지를 향해가면서 최고의 별을 뽑는 정규리그 MVP에도 서서히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규리그 MVP는 기자단 투표로 결정된다. 투표는 정규리그 종료 직후 시작해 포스트시즌 시작 직전 막을 내린다. 글자 그대로 정규리그 성적만으로 최고의 별을 선정한다.

MVP의 전제 조건은 팀의 우승이다. 반드시 우승팀에서 나오라는 보장은 없지만, 표심 휘어잡기에 유리한 것이 사실이다.

과거 사례들이 이를 증명한다. 앞선 16명의 여자부 정규리그 MVP 중 우승팀의 일원이 아닌 이는 프로원년 정대영(당시 현대건설)이 유일하다. 단 한 차례 만의 예외가 허락됐을 뿐 나머지 MVP는 모두 우승팀에서 나왔다.

올해 정규리그 우승 경쟁은 GS칼텍스와 흥국생명(이상 승점 53·18승)의 2파전으로 일찌감치 압축됐다.

MVP 역시 두 선수의 소속팀에서 탄생할 확률이 높다.

김연경·리츠·이소영 유력 후보
우승팀서 최고의 별 탄생할 듯



인천 계양체육관에서 열린 2020-2021 도드람 V-리그 흥국생명 핑크스파이더스와 KGC인삼공사의 경기, 흥국생명 김연경이 아쉬워하고 있다.

GS칼텍스의 유력 후보는 외국인 선수 리츠와 토종 에이스 이소영이다. 한국 무대 2년차를 맞이한 리츠는 3일 현재 득점 3위(806점), 공격종합 2위(44.33%), 오픈 2위(42.47%),

퀵오른 1위(51.71%) 등 대다수 공격 지표에서 상위권에 랭크됐다. 팀내 모두 1위에 해당한다. 리츠의 분전이 없었다면 GS칼텍스의 우승 도전 역시 쉽지 않았을 것이다.

토종 선수 중에는 이소영이 눈에 띈다. 득점 9위(406점), 공격종합 4위(41.15%), 오픈 9위(35.06%)로 리츠에는 못 미치지만 기록 또한 괜찮다.

부상을 달고 살던 예전과 달리 올해는 마지막까지 팀에 힘을 보태는 중이다. '소영 선배'라는 별명처럼 안 좋은 소식들로 가득했던 올 시즌 팀을 무탈하게 이끌었다는 점도 플러스 요인이다.

흥국생명으로 눈을 돌리면 단연 김연경이 눈에 띈다. 득점 5위(595점·토종선수 1위), 공격종합 1위(46.43%), 오픈 1위(44.73%), 퀵오른 3위(48.30%)로 복귀 시즌을 화려하게 수놓는 중이다.

학교 폭력으로 이탈한 이재영·다영 쌍둥이 자매의 공백과 불화설 등 갖은 악재 속에서 묵묵히 제 몫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MVP 후보로 조금도 손색이 없다.

GS칼텍스가 우승하면 리츠와 이소영의 집안 경쟁이, 흥국생명이 정상에 오르면 김연경의 무혈입성이 확실시 되는 분위기다. 운명은 남은 세 경기 결과에 달렸다. /뉴시스



옥태훈, 2021 KPGA 윈터투어 4회 대회 우승 3월 전북 군산시 군산CC에서 열린 2021 KPGA 윈터투어 4회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옥태훈이 트로피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KPGA 제공

고진영 드라이브 온 챔피언십 출전

김세영·박성현·이정은 등 한국 선수 15명 출전



은 챔피언십에 출전한다. 드라이브 온 챔피언십은 플로리다주에서 개최되는 다섯 개의 LPGA 투어 대회 중 하나이다. 투어에서는 이 시리즈를 '플로리다스윙'이라고 부른다.

고진영은 지난주 막을 내린 게인브리지 LPGA에서 4위에 올랐다. 올해 들어 처음 나온 대회에서 여전한 실력을 보였다.

예열을 마친 고진영은 올해 첫 우승을 바라보고 있다.

고진영은 게인브리지 LPGA를 마친 후 "그린이 어려워 퍼트에 고전했다. 단점을 보완해 목표를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고진영과 함께 세계랭킹 2위 김세영(28), 박성현(28), 이정은(25), 전인지(27) 등 15명의 한국 선수들이 우승을 놓고 혈투를 벌일 예정이다.

지난해 '올해의 선수'에 오른 김세영은 2021년도 자신의 해로 만들겠다는 각오로 경기에 임하고 있다. 김세영은 지난해 11월 펠리컨 위민스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후 아직 정상에 서지 못했다. 김세영은 올해 세계랭킹 1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대상 선수는 제시카 코르다-벨리 코르다 자매이다.

손흥민, 유럽 5대리그 월드컵 27인에 선정

잉글랜드 프로축구에서 활약 중인 손흥민(보트넘)이 영국의 한 언론이 선정한 유럽 5대리그 월드컵 27인에 리오넬 메시(바르셀로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와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영국 '기브미스포츠'가 3일(한국 시간) 유럽 5대리그로 꼽히는 잉글랜드,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에서 활약 중인 월드컵 27명을 선정했다. 손흥민은 아시아 선수로 유일하게 포함됐다.

우선 EPL에선 손흥민과 팀 동료 해리 케인을 비롯해 총 10명이 선정됐다. 이 매체는 손흥민에 대해 "케인의 믿을 수 있는 팀 동료로 2015년 8월 레버쿠젠에서 보트넘으로 이적한 후, 월드컵 27인 지위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총 18골 15도움으로 최고 활약을 펼치고 있다. 자신의 한 시즌 최다 공격포인트 기록을 갈아치웠고, 공격포인트를 기록할 때마다 새 역사를 쓰는 중이다.

조선대학교 여자 배드민턴, 전국대회 단체전 '금메달'

전국동계대학실업배드민턴선수권, 3대0으로 완승



광주시체육회는 조선대학교 여자 배드민턴팀이 경남 밀양 배드민턴경기장에서 열린 '2021 전국동계대학실업 배드민턴선수권대회'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다고 3일 밝혔다.

조선대학교 배드민턴팀이 전국대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광주시체육회는 조선대 여자 배드민턴팀이 경남 밀양 배드민턴경기장에서 열린 '2021 전국동계대학실업

배드민턴선수권대회'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다고 3일 밝혔다.

단체전은 1·2경기 단식, 3·4경기 복식, 5경기 단식 등 총 5경기를 펼쳤다.

조선대는 단체전 4강에서 안동과 학대를 상대로 4경기까지 하는 점진 끝에 전체스코어 3대 1로 물리치고 결승에 올랐다.

이어 단체전 마지막 경기에서 안동대를 만난 조선대는 1경기에 나선 유서연이 세트스코어 2대 0으로 이겨 기선을 잡았다.

또 2경기에 출전한 정혜진이 세트스코어 2대 1로 승리해 승기를 잡은 뒤 복식으로 펼쳐지는 3경기에서도 안혜원·유서연 조가 2대 1로 승리했다.

단체전 초반 3경기를 모두 이긴 조선대학교는 4경기 김다숨·정은영과 5경기 안혜원이 경기에서 나서지 않은 채 3대 0 완승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조선대 김동현 감독은 "모든 선수들이 예선전부터 좋은 기량을 선보여 금메달을 획득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열리는 전국대회에서도 좋은 결과를 기대해볼 것 같다"고 밝혔다.

/김도기 기자

로종닭 슷불구이 전문 닭꿈

www.chickendream.kr
T. 062-571-6007

닭들의 꿈



연말연시 단체예약환영 / 1~2층 홀&룸 120석 완비 / 넓은 주차장



점심메뉴(am 11~pm 2)	
※ 닭장떡국	7,000원
※ 닭곰탕	7,000원
※ 닭계장	7,000원
※ 닭죽	7,000원



광주시 북구 하서로 241번길 41 (양산동 367-12) 닭꿈